

핵심주제

- 제 3차 동방경제포럼 비즈니스 프로그램 구성 공개
- 신조 아베 일본총리, 2017년 동방경제 포럼 일본 사절단 인솔 계획
- 러시아 정부, 극동지역 "스바보드노이" 선도개발 구역 설립 승인함



## 동방경제포럼 소식

2017년 6월29일\_로시스까야 가제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제 3차 동방경제포럼에 베트남 사절단을 초청했다.**

러시아 대통령은 진대광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2017년 동방경제포럼에 베트남 사절단의 참가를 요청했다. 러시아와 베트남측은 러시아 극동 지역 개발에 양국이 적극적으로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고 푸틴 대통령이 밝혔다.

<https://rg.ru/2017/06/29/v-kremle-proshli-peregovory-prezidentov-rossii-i-vetnama.html>

2017년 6월28일\_리아 노보스찌

**유리 투르트네프 : 24개국이 2017년 동방경제포럼 참석을 확인했다.**

러시아 정부 부총리는 이전에도 외국 참가자들의 참여 열기가 높았지만, 2017년 동방경제포럼 참가 신청자는 제 1,2차 때보다 훨씬 많다고 밝혔다. 제 3차 포럼에는 중국, 일본, 호주, 캐나다, 미국과 영국, 독일을 위시한 유럽국가들이 참가를 이미 확인했다.

<https://ria.ru/economy/20170628/1497419198.html>

2017년 6월28일 \_로시스까야 가제타

**동방경제포럼에서 극동 인구정책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극동 지역 인구 정책의 우선 과제는 출생률 증대, 사망률 저하, 이민 인구 감소, 젊은 전문가 유치이다. 극동의 인구는 2020년경에는 6백2십만명, 2025년경에는 6백5십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https://rg.ru/2017/06/28/reg-dfo/utverzhdena-koncepciia-demograficheskoy-politiki-dalnego-vostoka.html>

2017년 6월26일 \_ gazeta.ru

**제 3차 동방경제포럼 비즈니스 프로그램 구성이 공개되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9월6일~7일 실시될 포럼의 최대 이벤트는 푸친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극동:새로운 날들 열어가면서”라는 원탁회의이다. 비즈니스 프로그램의 주요 행사는 주제별 4개로 구분된다. 첫 주제는 새로운 극동 개발 메카니즘 실현, 두번째 주제는 극동지역 투자 잠재력, 세번째 주제는 러시아와 아태지역 경제 통합, 네번째 주제는 극동 인구 정책 및 삶의 질 개선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러시아-아세안, 러시아-인도, 러시아-중국, 러시아-한국, 러시아-일본 등 다섯개의 국가별 비즈니스 회의도 준비되어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행사가 비즈니스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다.

<https://www.gazeta.ru/gazeta/adv/10737389.shtml>

2017년 6월23일 \_ lenta.ru

**2017년 동방경제포럼 참석자들을 위해 6천5백개의 호텔방이 준비되어 있다.**

제 3차 동방경제 포럼 참석자들의 최대 편의를 위해 블라디보스토크 22개 호텔들과 극동연방 대학교 캠퍼스 룸 예약 계약이 체결되었다.

<https://lenta.ru/pressrelease/2017/06/23/relise1>

2017년 6월19일 \_ 콤포소몰스까야 프라우다

**신조아베 일본총리가 2017년 동방경제포럼 참석을 위한 일본 사절단을 인솔한다.**

코바코프 러시아 연방 대통령 자문관과 코드주카 주러 일본 대사는 2017년과 2018년동안 러시아에서 진행될 각종 다자간 국제 경제포럼 관련 양국 대표단들의 협력방안을 협의했다. 모스크바 회의에서 주러 일본대사는 2017년 동방경제포럼 공식 사절단 규모를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https://www.kp.ru/daily/26693/3717444>

2017년 6월15일 \_ 인터팩스

**하얼빈에서 실시된 동방경제포럼 외부 세션에서는 극동지역에서의 러시아와 중국간 투자 협력방안이 논의되었다.**

“극동지역에서의 러시아와 중국간 투자 협력: 최초의 성공체험”세션이 제 4차 러중 엑스포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양국간 투자 협력 확대 방안으로 극동지역의 투자 잠재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졌다. 참석자들은 국가차원에서 양국의 비즈니스 확대를 돕기 위해서 어떤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하는지와 장기적 측면에서의 양국 경제 협력 확대 전략을 논의했다. 또한 러시아 극동 투자 가능성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이 있었다.

<http://www.interfax.ru/pressreleases/566752>

2017년 6월15일, 타스

### 동방경제포럼을 위한 서비스 전문인력들이 연해주에 양성될 예정이다.

블라디보스토크에 동방경제포럼 서비스 인원 확보를 위해서 연해주 주민들로 구성된 전문 인력 양성소가 설립되었다.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은 극동 교육/과학부와 함께 로스콘그레스 기금이 준비했다. 포럼 행사 진행을 위해서는 약 800여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운전수, 서빙요원, 식당운영 인원, 행사진행 인원에 대한 교육이 진행 될 계획이다.

<http://tass.ru/ekonomika/4337522>

## 극동 국가 정책

2017년 6월29일, 러시아 극동개발부

### 러시아 극동개발부는 자유항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자유항 적용 범위가 하바로프스크(노브이) 국제공항과 삿트로빠블로프스크-캄차뜨스끼(엘리조보) 국제공항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극동 개발부가 관련 법령을 러시아 정부에 상정했다.

<https://minvr.ru/press-center/news/6075>

2017년 6월28일, 베스찌

### 하바로프스크에서 “한국 투자자의 날”이 열렸다.

주요 한국 기업들이 극동에서 실현 가능한 투자 프로젝트들을 소개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에는 현대, LS Networks, KTI, 부산항, I&K 등 유명 기업들도 참여를 했다.

특히 한국투자자들은 극동지역에서 생선 전문 항구와 물류센터를 포함할 생선가공 공장단지 설립에 관심을 보였다. 이외에도 한국 기업들은 게맛살, 어포, 어묵 생산공장 설립 계획도 밝혔다. 이곳에서 생산될 제품들은 유럽이나 아태지역으로 수출될 계획이며, 총 투자액은 1억3천3백만 달러에 달할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는 2020년에 완료될 예정이며, 이 프로젝트로 2,36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http://vestiprim.ru/news/ptrnews/51732-koreyskie-investory-planiruyut-postroit-v-primore-rybopererabatyvayuschiy-i-logisticheskiy-kompleks.html>

## 극동 경제

2017년 6월10일, 극동캐피탈

### 올해 말까지 85개의 신규 업체들이 극동에 설립될 예정이다.

극동개발 신규 정책들 덕분에 지난 2년동안 2조3천억 루블에 달하는 직접 투자가 극동에서 이루어졌다. 2017년 극동 미디어 정상회의에 참석한 갈루쉬카 장관은 611개의 신규 투자 프로젝트를 통해서 2025년까지 1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새로운

공장과 기업들이 극동에 들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올해 말까지 1,100억 루블 이상의 투자를 집행하는 85개의 신규 회사들이 설립될 것이라고 밝혔다.

[http://dvkapital.ru/regionnow/dfo\\_10.06.2017\\_10017\\_na-dalnem-vostoke-do-kontsa-goda-otkroetsja-85-novykh-predpriyatij.html](http://dvkapital.ru/regionnow/dfo_10.06.2017_10017_na-dalnem-vostoke-do-kontsa-goda-otkroetsja-85-novykh-predpriyatij.html)

2017년 6월9일, forumvostok.ru

### 극동 미디어정상 회의 기간 중 50억루블에 달하는 투자 협정이 체결되었다.

극동개발청은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내 투자기업 지위와 특별 투자자격을 얻은 회사들과 건설, 목재가공, 가죽 생산 분야와 관련된 여러 건의 투자 협정을 체결하였다.

<https://forumvostok.ru/v-ramkah-dalnevostochnogo-mediasammita-podpisany-soglasheniya-s-investorami-na-summu-bolee-5-mlrd-rublej>

## 극동개발 신규정책: 성공사례

2017년 6월21일, 타스

###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내에 현대 물류 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메드베데프 총리는 극동에서 17번째 선도개발구역 조성에 대한 정부령에 서명하였다. 이미 세계의 투자업체가 "스바보드느이" 선도개발구역에서 이루어 질 투자 프로젝트들에 관심을 표명했다. "스바보드느이" 선도개발구역에는 아무르 가스가공 공장, 아무르 가스화학 공장 및 메탄올 생산 공장들이 들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https://ria.ru/economy/20170605/1495866956.html>

참조설명 : 2017년 동방경제포럼 기획사인 로스콘그레스 재단은 대형 전시 행사 기획을 전문으로 하는 최대 업체로서 2007년에 회의, 전시, 일반 행사 기획 및 진행을 통해서 러시아의 이미지를 강화하고 러시아의 경제적 잠재력을 확대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로스콘그레스 재단은 행사의 내용을 구성하고, 참가사나 운영업체들에 컨설팅, 정보 지원, 기타 전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러시아와 글로벌 경제 이슈들을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분석하며 관련 자료를 발표한다. 로스콘그레스 기금의 연간 프로그램인 몬테비데오로부터 블라디보스토크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 행사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업가, 전문가들, 언론인, 정부관료들의 참여하에 새로운 아이디어나 프로젝트 논의 및 소개를 위한 분위기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 사회사업 및 자선 사업 기획에도 참여한다.